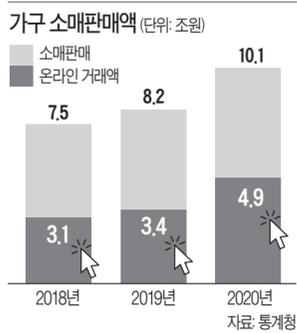


年 10兆로 큰 가구시장 ... 절반이 온라인 매출

가구 판매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구매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온라인 판매가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온라인 판매 급성장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매 판매액은 10조1865억원(잠정치)을 기록했다. 2016~2018년 7조원대에서 정체하다가 2019년 8조2256억원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조원을 넘겼다. 2016~2019년 연평균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으나 지난해 23.8% 급증했다.



집콕족 신규·교체 수요 폭발
작년 소매 판매 23.8% 증가
온라인 거래액 43.5%↑ ... 5조 육박

한샘 매출 2조 돌파 ... 신기록
리바트·까사미아도 온라인 특수

◆가구업체, 잇단 사상 최대 실적
가구업계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지난해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유통채널 확대와 온라인 사업 강화로 대응했다. 온라인 구매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온라인몰을 세단장했다. 온라인 방송으로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운영하는 업체도 늘었다. 그 결과 B2C 중심의 가구업체들이 호실적을 거뒀다.

가구업체 1위 한샘은 3년 만에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가습기 켜조”라는 사용자 음성 명령만으로 작동된다. 가습기 제조 브랜드 가운데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의 IoT·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도 연동돼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다.

공기청정 기능도 이 제품의 매력이다. 초미세먼지보다 작



한샘 디자인파크 기흥점의 매트리스 체험존.

출은 지난해 22% 늘어난 2조674억원에 기록했다. 온라인 사업부문 매출이 2372억원으로 39.5% 늘었다. 전 사업부문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현대리바트도 가상현실(VR) 등을 적용한 ‘리바트몰’을 세단장하고 가정용 가구 전문 라이브커머스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사업을 강화했다. 이 회사의 온라인 부문 매출은 전년보다 18%, B2C 가구 부문은 12% 증가했다. B2B(기업 간 거래) 가구 부문 성장률(6%)의 각각 3배, 2배 수준이다.

신세계그룹 가구업체 까사미아도 지난해 연간 매출 목표로 삼았던 1600억원에 이 제품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이 회사의 온라인몰을 ‘군닷컴’으로 세단장한 뒤 6개월 만에 기존 ‘까사미아몰’보다 매출이 153% 늘었다. 군닷컴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몰도 판매를 늘리며 전체 온라인 커머스 매출은 연간 기준 전년보다 약 48%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두드러진 인테리어 플랫폼 성장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의 성장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내 대표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의 지난해 가구 거래액은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앱 다운로드 1500만 회, 실제 활동 회원 수 10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국민의 약 4분의 1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30세대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한 집꾸미기 열풍 속에 급성장했다는 평가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구매 체험을 남긴 풍부한 후기가 쌓이면서 온라인에서 전시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과 B2C 판매 증가 추세는 올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리바트가 평일 오전에 가정용 가구를 주문하면 다음 날 배송하는 ‘내일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가구 물류분야 혁신도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혈액검사로 암 돌연변이 확인 환자 맞춤형 항암제 찾아준다

체외진단 전문기업 디엑숨
대형병원에 액체생검 키트 공급

디엑숨	
설립연월	2017년 6월
설립자	최종락 연세대 의과대 교수
사업내용	액체생검 등 체외진단
누적투자자지	300억원

체외진단 전문기업 디엑숨이 다음달부터 국내 대형병원에 액체생검 키트를 공급한다. 조직생검 없이도 암 돌연변이를 분석해 의료진이 적절한 항암 치료 수단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디엑숨은 다음달부터 국내 대형병원에 암 유전자진단 액체생검 키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디엑숨 관계자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종양의 유전정보(ctDNA)를 활용해 종양에 어떤 돌연변이 정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액체생검 기술로 의료진이 항암제 처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수가도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는 14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액체생검을 받을 수 있다. 적용증은 고형암이며 폐암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폐암은 암 돌연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직생검이 쉽지 않은 암으로 꼽힌다. 암 부위 조직을 떼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디엑숨은 폐암에 이어 대장암, 위암 등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전까지 국내 암 환자들은 액체생검을 이용하기 위해선 해외로 시료를 미

국에 있는 가던트헬스로 보내야 했다. 또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수백만원의 환자가 개인부담해야 했다. 결과를 받으려면 시료의 이동시간과 분석시간을 더해 10~12일이 소요됐다. 디엑숨은 1주일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국내에 ctDNA를 이용한 액체생검 기술을 개발 중인 벤처기업은 여럿 있었지만 국내 병원에 액체생검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곳은 디엑숨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ctDNA 액체생검 기술 세계 1위인 가던트헬스 못지않은 민감도를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로 암 돌연변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엑숨은 15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마쳤다. KDB산업은행, SV인베스트먼트, 기업은행, 아이디벤처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티앤비투자파트너스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디엑숨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준비에 나선다. 상장주관을 선정하는 대로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idol@hankyung.com

셀트리온, 아일리아 글로벌 임상 3상 착수

(안과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실적 성장 기대

등과 함께 셀트리온의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인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시작했다고 7일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3상을 통해 2022년 하반기까지 총 13개국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환자들을 대상으로 CT-P42와 아일리아의 효능성과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일리아는 바이엘과 리제네론이 공동개발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다.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치료제로 사용된다. 2019년 아일리아의 글로벌 매출은 8조5000억원이었다.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CT-P42 개발에 나섰다. CT-P42는 올해 상반기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이 예상되는 CT-P17(휴미라 바이오시밀러)과 현재 글로벌 임상 중인 CT-P16(아바스타인 바이오시밀러), CT-P39(졸레라 바이오시밀러), CT-P41(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관계자는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이 2023년 11월에 만료되는 점에 착안해 CT-P42 개발에 착수했다”며 “CT-P42의 글로벌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쳐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일리아는 한국에서 2024년, 유럽에서 2025년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셀트리온 외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도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알테오젠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전문 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을 앞둔 상태다.

삼천당 제약도 또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이상우 기자 idol@hankyung.com

스마트폰으로 작동 IoT 가습기 ... 공기정화까지

이달의 으뜸중가제품 루나스퀘어 스마트 가습기2

출고 건조한 날씨에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는 가습기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스마트가전 제조기업 엘디에이(이하 엘디에이)가 만든 루나스퀘어 스마트 가습기 2(사진)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가습기’다. 전용 앱(루나스퀘어 IoT)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 가습량 조절, 가열 기능, 아로마 효과 등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강현우 엘디에이 사장이 마케터 부장은 “잡자기 전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도 가습기를 켜 줄 수 있고, 정시간 외출 후 건조해진 실내 습도를 미리 높일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영양아를 둔 가정이나 애

AI스피커로 음성명령 가능
세균·초미세먼지까지 제거

완동물·식물을 키우는 가구에 유용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이 가습기는 인공지능(AI) 스피커인 KT의 ‘기가지니’, 네이버 ‘클로바’ 등과 연동할 수 있다. “가습기 켜조”라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만으로 작동된다. 가습기 제조 브랜드 가운데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의 IoT·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도 연동돼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다.

공기청정 기능도 이 제품의 매력이다. 초미세먼지보다 작



은 0.3μm(1μm=100만분의 1m) 입자 먼지를 99%까지 걸러내는 에어필터에 활성탄소 필터까지 결합돼 공기 중 유해물질과 냄새를 제거해준다.

이 제품은 초음파 및 가열식이 가능한 복합식 가습기다. 가열 가습 기능을 사용하면 약 90도까지 가열돼 3대 세균인 녹농균, 폐렴균, 황색포도상구균을 99.9%까지 살균할 수 있다. 전기료는 일반 가열식 가습기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제품의 또 다른 경쟁력은 가성비다. 기존 대용량 가습기에 비해 30~40%가량 저렴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회사 매출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33%가량 증가했다. 흥현철 엘디에이 사장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미국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인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코웨이 ‘구로 시대’ 활짝
넷마블 신사옥 입주



코웨이가 11년 만에 서울 서초문 사옥에서 구로구 넷마블 신사옥인 ‘G타워(사진)’로 이전한다.

G타워는 지하 7층~지상 39층, 전체 면적 18만㎡ 규모다. 코웨이 는 오는 22일 입주할 예정이다. 코웨이 최대주주인 넷마블을 비롯해 여러 IT·디지털 콘텐츠 기업도 함께 입주한다. 코웨이의 신사옥 입주는 지난해 대주주로 맞이한 넷마블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코웨이 관계자는 “넷마블의 혁신 문화를 접목해 글로벌 경쟁기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부동산 광고문의 02-365-3000	사대문안 빌딩 ▶ 대 550㎡ 건 1,800㎡ (총6층) ▶ 보 3.5억 / 월 3,500만 원 ▶ 공실 수, 수익 4.5% 매가 100억 02-519-3010	강남 빌딩 ▶ 대+건 3,900㎡ 하2/상9 ▶ 보 10억 / 월 1.1억 대로점 ▶ 신축 역 3년 매가 380억	신축상가건물 매매 인천 석남동 역세권 사거리코너 대지122평 / 건평176평 매가 35억 원대공인 010-9686-3335 (전속물건)	강남 병원빌딩 태헤로로 1,990㎡ 월세 4,150만 매가 110억 역세권 상점지 대 1,290㎡ 지 5,500㎡ 월 1억2천 병원 약국 커피 매가 450억 02) 6925-3495	홍대 수익형급매빌딩 대지 298㎡ / 건물 647㎡ 홍대 메인거리 지상5층 주변시세보다 아주저렴 매가 58억 02-511-0554	제네시스 ★ 전속물건 ★ ★서초동 역세권 ★ 대 664㎡ 면 6,637㎡ 18층 대기업본사 입주 신축 오피스빌딩 매매가 550억원 02-555-5202	★용인 신도시 근생 신축부지★ 5차선 × 5차선 대로본 코너 8,000세대 집중 단독 상권 대 1,064㎡, 450% 가능 매매가 40억원 02-6925-3028	(급매) 영등포 준주거지 1,670㎡ 상업지 330㎡ 다니엘부동산중개(주) (영등포시청, 신중앞세정80) 황종우 010-6269-6700	
물류창고부지 9만㎡ (분할가능) 성남 30분 이천 송라IC 1km 급매 75만/3.3㎡ 010-8772-2020	★ 급매 ★ 물류센타(창고) 기지 최적 • 한반도의 중심(동충주IC 인근) • 전곡 동 ↔ 서 남 ↔ 북 간에 교통 중심축(평택항 40분거리) • 면적 15,109㎡ (4570) • 건물대지면적 1,055㎡ (319) • 매가 ㎡당 250,000원 연락처 010-6419-2211 (주인 직통거래)	◆강서구 역세권 병원 ◆중구 상업지역 속박 렉서리 내외관, 전용 2분 2009년 대 1,350㎡ / 건 5,600㎡ 10층 병원용 E/V 2대 보 10억 / 월 9,000 임대계약 매 230억 010-9477-6742	급매빌딩 8층 대지 529㎡ / 건물 1,934㎡ 일반상업지역 1층 · 약국·의류점 2-8층 : 과 별로 병문안점(공실)· 보증금 10억 / 월 3,000만(관부) 총매가 70억 현금 60억 02-766-3236	★ 빌라 교환 ★ 도봉동 신축빌라 방2,거실,화장실,다락방(26.4㎡)포함 82.5㎡ (25p)형 빌라 매가 2억5천 (현재 1억8천) 010-6300-3584	신축 원룸 임대사업 년 15% (삼성이 선택한 평택) 대지312㎡ 2,465㎡ 상인수2억 월380만 대400㎡ 2,564㎡ 상인수1억8천 월428만 백정환 031-657-3567	강릉시 특급 원룸 강릉시 안인리 최요지 대지+건물 546㎡ 1층상가 132㎡ / 보1천 月200 연수익 1억4천 매가 13억 02) 6416-7016 / 010-6623-3567	병원빌딩급매및교환 대지 1,352㎡ 건물 5,337㎡ 지하2층 / 지상8층 매가 330억 (서울)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코너부지 교환원 010-3658-7791	구미 원룸4층 대지284㎡ / 건 505㎡ 16세대 내부 3층 올리모텔 용1억8천 용이48만 총매세 404만 원 수익률45% 인수가 9400 054-605-7842	역세권 수익형 건물 ▶ 신림동 근생주택 대지73㎡, 면적4㎡ 매 7억 4천 / 700만 매 33.5억 용지여 11월 12억 투자 5500만 원룸23 투룸2 010-9158-9897
한경안내 광고접수 02) 365-3000 네이버블로그 한경안내 검색	부동산 담보대출 빌딩, 상가 준공후 통대출 호텔, 임대, 공장, 교회, 요양원 아파트(2순위) 대환자금 신한모집인 빌딩·아파트·신속 · 금융연합회 코드번호 00003658	건축자금 PF대출 브릿지자금 준공자금 상담사 박주영 010-8995-3909	긴급상담 • 법인증자 • 여음환인 • 담보자금 • 잔고증명 • 법인설립 010-4869-4668	투자자 구함 담보제공 년간 36% 용인, 안성, 평택 개발사업 SK하이닉스 135만평 인접 서울세종 제2부IC 인접 010-5506-8946	투자 백억이상 채권주식 양도증서 코드바 법인자금증서 카드 현금사용 대환상권과 어울림인 점포전리 부도회사 인수 코스닥상장준비 아이엠 부동산자금 코인거래 주식거래 프랜차이즈 010-2842-4524	1~10억 안전투자 1순위 담보, 아파트, 땅, 상가 월 500만원 선이자 장기분할 투자자 010-5937-7890	격포유람선 투자자 찾습니다 010-4117-5300	담보 부동산 제공 한국감정의 50%매매 공시지가의 30%매매 땅, 건물(선설청/후불가능) 010-3603-2500	